

“대형포수에 목마른 한국, 포수 기피현상부터 해결해야”



조범현의 야구학

프로 지명때 투수가 유리하니 전향하기도 포수는 힘든 포지션이라는 고정관념 문제
고교 현장에서 지켜보니 포수 재능들 많아
지도자로서 책임감...야구계 함께 고민해야

‘조범현의 야구학’ 4번째 주제는 한국야구의 뿌리와도 같은 학생야구 이야기다. 조범현 전 kt 감독은 올 초부터 전국 각지 중·고교 야구부를 찾아 자신의 노하우와 지도법을 전수했다.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인연을 맺었던 경북고 야구부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11일 제71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한창인 목동구장을 찾았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선수들과 나는 웃음꽃도 잠시, 파부로 직접 느낀 학생야구의 문제점을 하나둘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유망주들의 포수 기피현상부터 지도자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야구기자 2년차 고봉준 기자가 묻고, 조범현 전 감독이 답했다.

Q : 오늘 16강전을 치르는 경북고와 올해 초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A : 지난달 대구에 있는 경북중으로부터 포수진을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재능기부 차원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런데 제가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은 경북고 박상길 감독이 연락을 취해와 함께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대구에 머물면서 중고생 포수들을 가르쳤습니다. 일정이 길지 않은 터라 기본적인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포수는 일단 자신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캐칭과 블로킹, 스로잉. 이 3단계를 할 줄 알아야 좋은 포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시키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Q : 대구 외에도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셨는데요. 느낀 점이 많았을 듯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지도했던 경북고 3학년 배현호 포수가 오늘 4번타자로 나와 맹활약(4타수 2안타 1타점) 했네요.

A : 선수들이 참 열심히 따라와 줬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야구인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니 소질 있는 선수도 많고, 열심히 하려는 선수도 참 많더군요. 앞으로 한국야구를 짊어질 유망주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배)현호도 그중 한 명입니다. 체격조건(178cm·82kg)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가르치면서 재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조범현 전 kt 감독은 학교 야구부에서 포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일반 야수와 투수에 비해 출신 선수들이 많지 않으니 지도자 풀 자체가 넓지 않은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 선수들에게 포수 지도를 하고 있는 조 전 감독.

엔 스로잉부터 블로킹까지 손볼 곳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 다른 선수가 돼있네요. 뿌듯합니다. (웃음) 오늘도 잠깐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호 같은 선수를 볼 때면 늘 아쉬움이 들어요. 조금 더 함께 있으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요새도 광주나 다른 지방에서 방문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일정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Q : 오늘 찾은 황금사자기에 얹힌 추억도 있을 듯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77년 총암고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한 기록도 있습니다.

A : 벌써 40년이 됐네요. 그때 기억은 아직도 생

생합니다. 당시 신일고와 8강전에서 우리 팀에 이스 기세봉이 9회말 1사까지 노히트노런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2-0으로 앞선 상황이라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양승호와 박종훈에게 안타를 내주더니 김남수에게 끝내기 3점 홈런을 맞고 졌습니다.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다들 울며불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훈련을 좋아하시던 김성근 감독님도 위로 차원에서 우리들을 극장과 중국집으로 데려다 주시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도 당시 충격패가 악이 되어서 바로 이어 열린 봉황대기에서 우리가 광주일고, 광주상고(현 광주진흥고) 같은 강호들을 꺾고 우승을 할 수 있었습

니다. 황금사자기 트라우마가 의지를 다져준 셈이죠.

Q : 다시 학생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학생선수들의 포수 기피현상이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현장에서 파부로 느끼신 분위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A :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남들의 입을 통해 전해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로 지명에서 투수들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차지명을 비롯해 아무래도 투수들이 더 높은 순위에서 이름이 불리다 보니 학

부도 입장에서선 자식을 포수보다 투수로 키우고 하죠. 부상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포수를 기피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힘들다는 인식이 학부모든 물론 선수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어 선풍 마스크를 쓰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포수 출신 야구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포수 기피현상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 다행입니다.

Q : 포수 출신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A : 학교 야구부에서 포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가장 뼈아픕니다. 일반 야수와 투수에 비해 출신 선수들이 많지 않으니 지도자 풀(pool)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이번엔 지방을 오가면서 이러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포수 출신 코치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비시즌 같은 기간을 이용해 학교 코칭스태프가 프로 배터리코치와 만나면서 노하우를 전수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도법을 받아들이면 결국엔 이들이 가르치는 선수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런 과정이 쉽지 않지만 어린 선수들을 위한다는 일념이 중요할 듯합니다.

Q : 포수 기피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에도 크나큰 약점이 될 듯 한데요.

A : 맞습니다. 프로팀은 물론 국가대표 역시 좋은 포수가 있어야 준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영리한 포수가 있으면 감독이 게임 운영을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수로서도 포수 경험은 유용합니다. 굳이 한 선수가 포수로 프로에 가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써본 경험은 야수·투수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야수로 전향해 성공한 최형우(KIA)와 박병호(미네소타), 강정호(피츠버그)는 물론 투수 김재윤(kt)까지. 포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선수들은 어디에서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말로 ‘(운영의) 묘’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포수 기피현상 때문인지 과거 진강용이나 홍성흔처럼 프로 입단 직후 자리를 꿰차는 대형선인을 볼 수 없습니다. KBO리그를 비롯해 국제무대 경쟁력마저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당장은 강민호(롯데)나 양의지(두산)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포수 출신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저 역시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하겠지만, 이는 야구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임엔 틀림없습니다.

정리 | 고봉준 기자 shulout@donga.com

고교야구 현장 진단, 대형 신인포수 왜 만나오나?

공격력 약한 포수는 설 자리가 없다...기다려주지 않는 전쟁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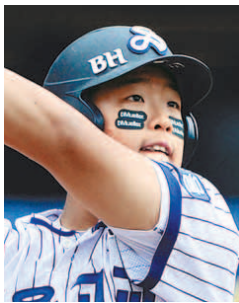
기술 뛰어나도 선수파악 등 시간 필요해
학교엔 배터리코치 부족...기본기에 취약
NPB 12개 구단 젊은포수 전성시대불구
KBO리그 기근...고교야구 4명정도 눈길

“포수 키우기가 참 힘들죠.”

제71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스포츠포스트·동아일보·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16강전이 열린 10일 서울 목동구장. 한 KBO리그 구단 스카우트는 이 같이 말했다. 팀의 주축이 될만한 대형 포수자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신인 포수의 1군 진입, 왜 어렵나

실제로 고교와 대학무대를 호령하던 포수가 높은 지명순위로 프로에 입단한다고 해도 당장 두각을 나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격력이 뛰어나다면 지명타자, 또는 대타요원으로 1군 엔트리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조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포수로 입단한 뒤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 내·외야수로 전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KBO리그 포수 출신 지도자는



강백호(서울고)



한준수(광주동성고)



김원준(부산고)



김형준(세광고)

“능력치가 있어도 자기 팀의 선수와 상대 타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새로운 선수를 파악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인 포수가) 바로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구단 스카우트팀장은 “초·중학교 때부터 포수 교육을 받은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차이는 매우 크다”며 “실제로 배터리코치가 있는 고등학교가 그리 많지 않는데, 이는 포수의 기본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포수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인 강한 어깨는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포구와 블로킹 등은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포구가 안

정돼야 송구와 블로킹 능력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수가 프로에 입단하면 일단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훈련방법을 찾는다”며 “하체, 특히 고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이 중요하다. 사실상 기본기 훈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포수 스카우트,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또 다른 구단 스카우트는 “포수를 스카우트할 때는 수비력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전제하면서 “주전급 포수가 되려면 공격력도 갖춰야 한다. 매 경기에서 4번의 타석에 들어가는 데,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상대 투수에게 위압감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

는 “공격력이 약한 젊은 포수는 승부처에 대타와 교체되곤 한다. 경기의 향방을 가능할 중요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쓸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타격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한 일본프로야구(NPB) 명포수 출신 후루타 아쓰야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스카우트는 “골반의 유연성과 포구, 블로킹, 어깨의 강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포구에서 송구에 이르기까지 연결 동작이 핵심이다”며 “일단 포수의 수요가 많지 않다.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 투수 쪽에 무게를 두곤 한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하면 사정이 낫다. 좋은 포수를 찾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고 전했다. 복수의 스카우트에 따르면, 2018시즌 KBO리그 신인드래프트 참가 대상인 고교 3학년 포수 중 강백호(서울고), 한준수(광주동성고), 김원준(부산고), 김형준(세광고)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젊은 포수 특색하는 일본 사례

NPB의 경우 12개구단 주전포수 가운데 절반인 오릭스 와카쓰키 켄야(22), 지바 롯데 다무라 다쓰히로(23), 소프트뱅크 카이 타쿠야

(25), 한신 우메노 류타로(26), 야쿠르트 나카무라 유헤이, DeNA 도바시라 아스타카(이상 27)의 6명이 1990년대생으로 젊다. 이들 중 와카쓰키와 카이를 제외한 4명이 데뷔 첫해부터 1군 무대를 밟으며 경험을 쌓은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도바시라와 우메노는 개막 엔트리에도 포함됐다. 애초부터 기본기를 잘 다져놓은 덕분에 프로에 적응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평가다. 강한 어깨를 앞세운 수비력이 강점인 도바시라는 올해 4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단 직후 훈련의 흐름과 투수들의 특징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봤다. 첫 단추를 잘 끼운 덕분에 데뷔 3년째인 지금은 부동의 주전포수다.

포수는 술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신인 포수에게는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느 시점까지 믿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 포수 출신 지도자의 말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처음부터 기회를 얻으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그 기본기는 프로 입성을 위한 경쟁터인 고교야구 무대를 밟기 전부터 다져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